

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, 출퇴근 30분 시대 견인” - 23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찾아 적기 개통·안전사고 예방 강조 -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3일(금) 오후 3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.
- 별내선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을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남양주 별내지구, 진건지구,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, '16년에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.
- 강 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,
 - “별내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넘어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‘출퇴근 30분 시대’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”면서,
 - “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, 특히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,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취약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끝으로 강 위원장은 “광역교통시설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기관 간 갈등이 빈번하므로, 지난해 10월 별내선 운영에 대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한 것처럼 각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”를 당부하면서, 대광위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.

2024. 2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